



글·사진 : 편집부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모든 것 2010 FOOD WEEK

오리업계 (주)화인코리아,
(주)코리아더카드 참여, 주목받아

일시 : 2010. 11. 18(목) ~ 21(일), 4일간

장소 : 삼성동 코엑스 1, 3층

①한식과 예술의 만남, 푸드스타일리스트들의 작품 전시 ②참관객들이 직접 참여,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 진행 ③(주)코리아더카드 홍보관 ④(주)화인코리아 홍보관





'2010푸드위크'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홀에서 그 성대한 막을 올렸다. 이 행사는 농림수산식품부가 2006년부터 매년 주최해 왔는데 올해는 '코리아 푸드 엑스포'와 '푸드위크'를 합쳐 더욱 큰 규모로 열리게 됐다. 본 행사에는 국내 850개, 해외 150개 업체가 참가해 국내 식품은 물론 해외식품산업의 트렌드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농수축산물과 다양한 가공품을 비롯하여 식품과 관련된 기기, 자재, 유통, 식품관련 전문지 등 관련 업계가 총출동하여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의미 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한식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자 국내 유명 푸드스타일리스트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돼 일반 소비자와 해외 바이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특급호텔 요리사와 유명 요리연구가와 함께하는 '쿠킹쇼', 아이들을 위한 '키즈 쿠킹', 간단히 만들어 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 쿠킹' 등 식품을 이용한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지면서 참가객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더욱 호응이 높았다.

이번 행사에는 오리육 계열업체인 (주) 화인코리아와 (주) 코리아더커드가 각각 전라남도관, 전라북도관을 통해 참관, 오리고기의 맛과 영양적 우수성을 알리는 데 큰 몫을 하였다.

(주) 화인코리아는 전남 나주에 위치한 가금육 계열업체로, 약 40년간 오리산업에 매진해 온 오리업계의 터줏대감으로 자리매김해 왔으며 국내 최대의 오리생산지인 전남지역 오리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함께 해 온 업체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 국민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는 오리 훈제제품부터 최근 개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오리죽, 삼계죽 수출제품을 전시하여 참가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주) 코리아더커드는 최근 크게 성장하고 있는 오리육 전문 계열업체로, 녹차력인 오리 '다향오리' 브랜드로 한창 인기몰이 중에 있다. 특히 최근 무항생제 오리육 브랜드 '오리늘보'를 런칭, 청정 오리육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다양한 향신료와 양념을 배합한 Ready To Eat 제품을 선보이며 오리고기 인기몰이에 앞장서고 있으며 이번 행사에서 오리 떡갈비 등 신제품 시식과 전시를 통해 참가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를 통해 코리아더커드와 화인코리아 두 업체 모두 훌륭한 식품으로서의 오리고기를 국내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국내 오리산업의 비전을 제시, 국내 오리산업이 축산업은 물론 식품업계에서도 블루오션 산업임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